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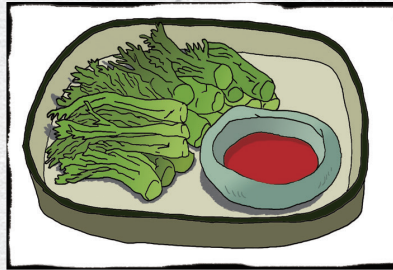
그때 그랬지...

송중계소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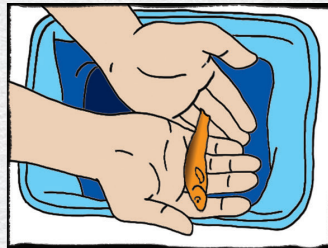
아주 오래전 송중계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즐거웠던 에피소드입니다.
송중계소 근무는 많은 분들이
기피하는 곳이지만 인근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많아
계절마다 색다른 별미와
즐거움이 솔솔했지요..



봄.
눈이 녹고 봄기운이 돌면
중계소 중턱에 산나물이 지천입니다.
취나물, 두릅나물을 채취해서 산나물
비빔밥을 비비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등산 하시는 분들은 이 기분 아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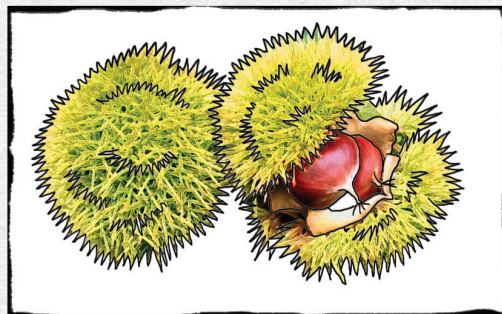
여름.
장마가 끝나고 계곡물이
맑아지면 중계소 오르기전
계곡입구에 어항을 준비해서
물속에 넣어두면 퇴근무렵
피라미가 한가득입니다.



라면 매운탕에 피라미 튀김에 여름철 별미중
별미입니다..

가을.

오색단풍 만큼이나 풍요로운 것이 가을 산이죠.
가을엔 밤나무 아래 알밤 줍는 재미에 시간 가는줄
모릅니다. 밤나무 아래 토실토실한 알밤이 금새
한자루 가득입니다. 토종산 밤이라 알은 작지만
맛은 끝내줍니다.



겨울.

쭙고 눈 쌓인 겨울철
송중계소 점검은 조금은
고통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엔
중계소 점검을 마치고
오후에 인근 스키장으로
스키타러 가는 여가가 있었습니다.
야간스키에 대포 한잔 하면서
온천욕하는 즐거움이 있었지요.



힘든 송중계소 근무였지만 그래도 현업시절 가장 즐거웠던 기억
이네요. 지금도 그 시절 선배들을 가끔 만나 그때 일을 추억으로
소주한잔 하고 있지요.

